

2026. 7. 30.(목)
Vol. 45

우리 팀 소개 ⑭ 중형압연팀

안전·품질·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중형압연팀

중형압연팀장의 메시지

1. 무재해 1배수 달성, 안전문화로 성장하는 중형압연팀

우리 중형압연팀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H형강, 채널, 앵글, 시트파일 등 다양한 중형 형강 제품을 생산하며, 트랙슈(궤도) 생산까지 담당하는 핵심 생산부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팀은 '안전이 곧 품질이고,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온 결과, 최근 무재해 운동 1배수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형압연팀 전 구성원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안전문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형압연팀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재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 끊임없이 소통하는 후처리 공정

Q. ISC 중형 후처리 공정은 어떠한 곳인가요?

박정순 기장(중형 후처리) 중형 후처리 공정은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출하할 수 있는 최종 상태로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시편 절단, 교정, 절단설, 검정상, 결속, 라벨 부착, 재공, 블레이드 등 다양한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정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 전·후 충분한 소통과 상호 확인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팀원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처리 공정은 설비 내부 작업이 많아 철저한 출입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며, 동시에 고객에게 전달될 제품의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공정인 만큼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품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재해 1배수 달성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안전 실천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작업문화를 정착시켜 무재해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의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후처리 공정을 소개 합니다.



▲(재공) 왼쪽부터 김희선 계장, 홍인기 사원, 홍보현 사원, 김중수 사원, 서정현 사원, 박정순 기장, 곽한용 사원, 박경서 사원, 강성준 사원, 박종석 사원

Q. 재공 공정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김희선 계장(재공) 재공 공정은 압연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딩 공정에서는 외부 결함을 제거하고 제품을 보수하며, 프레스 공정에서는 형상 불량 제품을 교정합니다. 또한 밴드쏘 공정을 통해 길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절단해 규격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Q. 중형압연팀을 위해 한마디 한다면?

박송산 사원(라벨부착) 중형압연팀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팀의 발전과 무재해 달성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벨부착) 왼쪽부터 한정훈 사원, 박송산 사원, 박종열 계장

Q.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한마디 한다면?

박진호 주임(결속) 아무리 바쁜 작업 일정 속에서도 안전수칙 준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습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편절단, 교정) 왼쪽부터 지동환 사원, 이학선 사원, 윤영훈 사원

Q. 검정상 담당 계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한다면?

강수복 계장(검정상) 앞으로도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검정상 공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절단설, 검정상, 결속) 왼쪽부터 이정민 사원, 임형준 사원, 김인섭 사원, 유지수 사원, 강수복 계장, 박진호 주임

Q. 블레이드 공정 직책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박진우 주임(블레이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블레이드 가공) 왼쪽부터 박진우 주임, 박병규 사원

이번호 '여름' 테마 추천도서 물류지원팀 김성철님의 추천도서 이야기



아무튼, 여름

시/에세이 | 김신희

휴가, 수영, 한강, 여름밤의 산책 등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간직한 여름의 기억이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사랑과 이별, 설렘과 불안,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담한 시선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지나온 여름의 기억을 따라가며 그 시절 웃고, 고민하고, 성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름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즐기는 마음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Q. 도서 추천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지원팀 김성철입니다. 이번 '여름'이라는 주제에 맞춰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7월이 되면 마음은 어느새 푸른 바다와 시원한 휴가지로 향합니다. 작가가 오롯이 여름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에세이로,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원한 바닷바람, 청량한 수영장 냄새, 그리고 휴가지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책입니다. 멀리 떠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름의 정취를 느끼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복강스' 도서입니다. 동료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절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의 뜨거움을 기꺼이 즐기는 것."이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소에는 무더위와 장마로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계절로 생각했지만, 이 문장을 읽고 나니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 시원한 수박 한 조각, 휴가를 기다리는 설렘 모두 여름이기에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위에 불평하기보다는, 이 계절이 주는 낭만과 힐링을 온전히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반복되는 업무와 무더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실 때입니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에 머물며,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을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쁜 일정으로 떠나지 못하시더라도 에어컨 바람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이 책을 펼쳐보세요. 마치 눈앞에 여름 바다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 좋은 힐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대ISC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성철님처럼, 전자도서관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전자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2026년 기술직 신입 직책자 교육 새로운 역할의 시작, 리더의 첫걸음을 내딛다.

지난 6월 25일, 기술직 신입 직책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주임으로 선임된 8명이 참석해 직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량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은 ISC 마인드셋을 시작으로 직책자의 역할과 책임, 리더의 자기 인식, 효과적 팀 관리와 소통, 성장을 이끄는 동기부여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의견을 나누며,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과 소통방식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마친 참석자들은 "회사의 방향성과 직책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동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직책은 단순한 직급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맡는 시작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 직책자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팀 관리와 소통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현대ISC의 성장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신입 직책자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왼쪽부터 대형압연팀 이남수 주임, 물류지원팀 성해표 주임, 제강팀 조창일 주임, 축로팀 유환일 주임, 중형압연팀 이현우 주임, 물류지원팀 김정민 주임, 기계정비팀 장지범 주임, 제강팀 김다빈 주임

'휴식·쉼' 추천도서 코너 따뜻한 봄날, 마음에 남는 한 권의 책

무더운 날씨 속 잠시 숨을 고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추천도서 코너에서는 **휴식과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전해준 책,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라면 자유롭게 추천해주세요.

한 권의 이야기가 치진 일상 속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추천도서 '테마'는? 휴식·쉼

참여 방법

- 1 전자도서관에서 '테마와 어울리는 책' 읽기
- 2 책 추천 이유와 감상평 작성하기 (*자유양식)
- 3 메일로 보내기 (hhk7631@hyundai-isc.com)

참여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까지

시상

- 심사 후 우수 추천작 선정
- ▶ 선정자 개별 안내 및 사보 공지
 - ▶ 소정의 선물 증정 (EX.텀블러)

2026년 하계휴양소 안내 '호텔탐스텐'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름



담당자가 추천하는 여행 코스



폭염 속 건강 지키기 올바른 수분보충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 무더운 환경에서 작업하다 보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전·중·후 물 한 컵을 챙겨 마시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1 땀을 많이 흘리면 무엇이 부족해 질까요?



땀은 단순히 물만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물이지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많은 땀을 흘린 후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모두 보충해야 합니다.

수분 부족

갈증, 두통, 피로감

전해질 부족

근육경련, 어지럼증

장시간 방치

탈수, 열탈진, 열사병 위험 증가

※ 야외작업이나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수분보충, 이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이 갈증을 느낀 후 물을 마시지만, 갈증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을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컵이 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료

물

- 가장 기본적인 수분 공급 방법
- 일상적인 수분 보충에 적합
- ※ 식염정을 함께 섭취하여 전해질 보충

이온 음료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권장
- 전해질 보충 가능
- 장시간 작업 후 섭취 시 도움

이런 음료는 주의하세요

커피, 에너지 음료

- 카페인 이뇨작용 증가

맥주 및 주류

- 체온 조절 기능 저하
- 탈수 위험 증가

탄산, 고당 음료

- 당분 함량이 높아 갈증 유발

수분보충 실천 수칙

- 1시간 마다 최소 200ml (종이컵 1컵) 이상 마시기
-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마시기
- 작업 전·중·후 충분히 마시기
- 시원한 물 또는 이온음료 선택하기
- 한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나누어 마시기

※ 올해부터 하기음료는 이온음료(포카리스웨트) 100% 지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은 낮추고, 안전은 높이고

중형압연팀 위험성평가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중형압연팀이 현대제철이 주관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치공구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신규 제품인 트랙슈의 재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개선한 사례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분리, 파일링, 뒤집기 작업 시 형상에 맞지 않는 지그 사용으로 제품 충돌 및 베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형압연팀은 분리·파일링 작업용 마그네트 지그를 사용하고 제품 뒤집기 전용 지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 충돌 및 베임 위험 제거, 작업자 안전 거리 확보, 와이어 파단 위험 예방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히 위험을 평가하는 활동이 아니라,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찾아내고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업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를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안전은 특별한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낸 중형압연팀의 장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랙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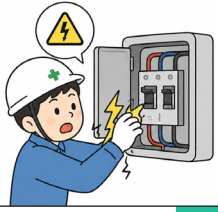


마그네트 지그



뒤집기 전용 지그

여름철 안전사고 감전·풍수해 사고 예방



여름철은 높은 습도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전 사고 예방



전기 기계·기구 사용 전 점검

· 분전반, 콘센트, 전선 등 확인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 취급 금지

· 작업용 장갑 여유분 구비 및 교체



습윤 장소에 가설전설 포설 금지

· 물고임 장소 등



감전사고 발생 우려 시 접근 금지

· 소방대(2119) 및 관리감독자 상황 전파 후 대응

풍수해 사고 예방



기상특보 상시 모니터링

· 문자 수신 상태 확인



배수시설 점검

· 배수로 확보 및 준설
· 배수펌프 작동 상태 등



침수 위험지역 점검

· 건축물 기초 균열/탈락 상태
· 분전함 접지/누수 상태



시설물 고정 및 보강

· 지붕·벽체·설비 등 고정 상태
· 시설물 고정 (가시설, 표지판)



비상대응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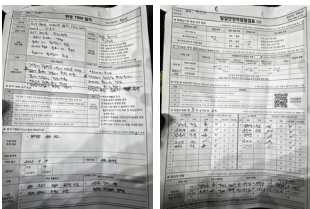
· 비상대응 책임자 지정
· 비상 시 이행절차 숙지
· 수방시설 확보 (모래주머니 등)

안전은 말이 아닌 실천, 안전수칙 준수 우수자

반복되는 작업일수록 긴장을 늦추기 쉽지만, 기본을 지키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오늘도 기본을 지키고,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10

60톤 제강공장



· 축로팀 : 한성민 기장, 남철희 계장, 이종원 계장,
김민호 주임, 유환일 주임

작업 내용 변경 시 위험성 확인 및 추가 TBM 실시
/ 작업자 변경 시 작업자 및 점검자 반영 / 혹서기
작업 관리대장 작성 상태 및 휴식시간 준수 양호

7/10

로재공장



· 축로팀 : 이병구 사원

고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
계단형 작업대 내려올 시 뒷걸음질 및 안전난간
파지하며 이동

+ Safety Quiz, 안전 지식 한입 +

Q.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응모방법

정답/소속부서/사번/직책/이름/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bin9506@hyundai-isc.com (황원빈 매니저)

보내실곳

추첨을 통하여 총 20명 5,000포인트/인 마일리지 지급

응모기간

2026년 8월 7일(금) 까지

*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4호 'Safety Quiz' 정답: 2번 (커피 많이 마시기)

당첨자 명단

No	팀명	이름	No	팀명	이름
1	제강팀	조창일	11	전기정비팀	최영민
2	대형압연팀	정명석	12	물류지원팀	윤경조
3	대형압연팀	백현우	13	물류지원팀	최인수
4	대형압연팀	이은철	14	물류지원팀	박종훈
5	중형압연팀	최용우	15	물류지원팀	김태훈
6	중형압연팀	이규호	16	물류지원팀	추경호
7	중형압연팀	조상필	17	물류지원팀	이정일
8	중형압연팀	정국용	18	물류지원팀	이주원
9	중형압연팀	장성우	19	물류지원팀	김현수
10	기계정비팀	유지호	20	물류지원팀	김성철